

# KIA - LG '빅매치'... 후반기 달군다



지난달 19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LG 1루수 오스틴(왼쪽)이 4회 말 KIA 소크라테스의 땅볼 타구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

올스타전 휴식기를 보낸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치열한 순위 싸움을 재개한다. 후반기에 돌입했다.



KBO리그 1위부터 10위까지 격차가 단 13경기여서 상위권 팀도 한숨을 돌릴 틈이 없다. 프로야구 흥행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다. 하위권 팀들은 상위권 도약의 희망을 품고 있다.

9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첫째 주부터 빅매치가 편성됐다. 전반기를 1위로 마친 KIA 타이거즈는 9~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2위 LG 트윈스와 주중 3연전을 벌인다. KIA(48승2무33패)가 2위 LG(46승2무38패)에 3.5경기차 앞서고 있어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뀌지는 않는다.

KIA는 전반기 LG와의 맞대결에서 6승 3패로 앞섰다. 전반기 평균자책점 1위

## 리그 재개 첫 날부터 1~2위 격돌... 최강 투수진 출격 1~10위 격차 단 13경기... 상위 팀도 숨 돌릴 틈 없어

(2.66)에 오른 제임스 네일은 LG전에 3차례 등판해 1승 평균자책점 1.96으로 호투했다. KIA 대체 외국인 선수 캠 알드레드도 LG전에 한 번 등판해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6이닝 2피안타 2실점(비자책)으로 잘 던졌다. KIA는 하반기 첫 3연전에 네일, 알드레드와 토종 에이스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울 전망이다.

전반기에 LG에서는 KIA전 선발승을 따낸 투수가 없었다. 디트리크 엔스와 손주영이 KIA를 상대로 3번씩 선발 등판했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후반기 첫 3연전에 LG는 케이지 켈라엔 스인찬규를 가동할 계획이다. 영경업 LG 감독은 "후반기부터 제대로 된 순위 싸움

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전 유격수 오지환이 부상을 털고 복귀를 앞두고 있는 게 LG로서는 고무적이다.

5위 SSG 랜더스와 8위 롯데 자이언츠의 인천 주중 3연전 결과는 중위권 다툼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SSG와 롯데의 격차는 단 3경기다.

3~4월을 최하위(승률 0.276·8승 21패 1무)로 마친 롯데는 5월 승률 3위(0.565·13승 10패 1무), 6월 승률 1위(0.609·14승 9패 1무)에 오르며 중위권과 격차를 좁혔다. SSG는 시즌 내내 승률 0.500을 오르락내리락하며 5위에서 머물고 있다.

롯데를 포함한 하위권 팀은 5위 SSG와 격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기 롯데

와 맞대결에서 4승 3패로 근소하게 앞선 SSG는 하반기 첫 3연전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롯데의 추격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12~14일 잠실에서 벌이는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주말 3연전도 주목할 만하다. 삼성은 전반기 막판 5연패를 당해 2위에서 4위까지 미끄러졌다.

하지만 3위 두산 베어스와 1게임, 1위 KIA와는 5게임 차로 격차는 크지 않다. 삼성은 올스타 휴식기에 팀내 분위기 쇄신을 위해 1군 수석 코치와 투수 코치·타격 코치·배터리 코치를 몽땅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5연패를 당한 분위기를 털어내기 위해서였다.

규모가 큰 코치진 보직 변경을 한 터라 삼성 더그아웃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전반기 삼성에 1승 8패로 처절하게 당한 두산은 하반기 첫 맞대결에서 설욕을 노린다. 박병형 기자 bhpark@skyedaily.com

# “정몽규 회장이 내게 전권... 홍명보 감독 선임 홀로 결정”

## 이임생 '피마른 일주일' 회고

이임생(52)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독박이다. 후보자 간 비교와 고만·판단·최종 결정과 설득까지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다.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명보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배경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내게 모든 권한을 줬고, 감독 결정은 스스로 투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임생 이사 단 한 명의 고민과 판단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지난달 28일 정해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 9명의 전강위원 중 사퇴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5명 위원과 화상 회의를 거친 뒤 이임생 이사는 사령탑 선임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다.

국가대표팀 사령탑은 전강위 추천을 통해 협회 이사회가 최종 선임한다. 협회는 법무팀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추후 이사의 승인을 받는다면 전강위의 위임을 받은 이임생 이사가 단독으로 사령탑을 선임하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지난달 20일 10차 전강위 회의 이후 실질적인 최종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축구협회가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임생 이사는 “(정해성 위원장 사퇴 뒤) 누군가는 절차대로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고, 정몽규 회장이 내게 모든 권한을 줬다. 절차에 맞게 일을 추진해왔다”고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이임생 이사는 이달 2~4일 외국인 후보자였던 다비드 바그나·거스 포엣 등 외국인 감독과 유럽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한국 축구에 적합한 지도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깊게 고민한 이임생 이사는 5일 밤 11시 홍명보 감독의 자택으로 찾아가다. 홍명보는 이의사의 고려대 축구부 3년 선배로 포지션도 같은 수비수여서 각별한 사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여자 높이뛰기 37년 만 신기록



### 마후치크 “우크라이에 영광을”

2년 4개월 동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야로슬라바 마후치크(22살)가 37년 만에 여자 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바꿔냈다.

마후치크는 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샤를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세계육상연맹(IAAF) 파리 다이아몬드리그 여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10을 넘어 우승했다. 1987년 8월 스테파카 코스타디노바(불가리아)가 작성한 2m09를 1cm 넘어선 세계 신기록이다. IAAF는 “마후치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2m10을 넘어 여성이 됐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마후치크는 이날 2m03을 넘는 순간 2m10을 제치고 우승을 확정했다. 이어 마후치크는 2m07을 두 번째 시기에 넘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기록(2m06)을 경신했다. 도전을 멈추지 않은 마후치크는 2m10으로 바를 높였고 1차 시기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의 새 주인이 됐다.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고, 2022년·2023년 다이아몬드리그를 제패한 마후치크는 오래전부터 여자 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깨뜨릴 것으로 촉망 받아왔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3위에 오른 마후치크는 세계 기록 보유자의 완장을 차고서 파리 올림픽에 나선다. 박병형 기자 bhpark@skyedaily.com

이의 니콜라 올리슬라저스 (호주)를 제치고 우승을 확정했다. 이어 마후치크는 2m07을 두 번째 시기에 넘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기록(2m06)을 경신했다. 도전을 멈추지 않은 마후치크는 2m10으로 바를 높였고 1차 시기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의 새 주인이 됐다.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고, 2022년·2023년 다이아몬드리그를 제패한 마후치크는 오래전부터 여자 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깨뜨릴 것으로 촉망 받아왔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3위에 오른 마후치크는 세계 기록 보유자의 완장을 차고서 파리 올림픽에 나선다. 박병형 기자 bhpark@skyedaily.com

RomaRo GRAND QUALIT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ogolf.co.kr